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명운동 진행

95.5.19

'18년간 어머니 폭행에 분노' 여성의 전화, 재판부에 정상참작 탄원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아들이 살해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아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별거중이던 어머니 한모(38)씨를 노상에서 폭행하는 아버지 전상덕(39)씨를 보다 못한 아들 전경진(17)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버지 전씨가 어머니 한씨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전경진씨는 평소처럼 또다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때릴 것 같아 아버지 전씨를 밀치고 순간적으로 호프집 주방에 있던 칼

을 들고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이와 함께 전경진씨는 평소 가정환경에 대해 내색을 앓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회 간부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전경진씨를 만나는 등 사건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전경진씨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어머니 한씨는 결혼 초부터 18년 동안 구타를 당해왔

고 전경진씨 또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일 아버지 전씨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인다'면서 아들 전씨를 극도의 공포상태로 몰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의전화 관계자가 어머니 한씨를 상담한 결과 93년 남편의 구타를 못이겨 전경진씨와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회피해 이미 예견된 사고였음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도 호프집 주인에게 경찰

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족사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한씨는 "왜 우리가 그렇게 도와 달라고 했을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야만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냐"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및 9개 지역 여성의 전화는 물론 전경진씨의 담임선생님, 가족들은 지난 16일 1차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여성의전화는 전경진씨에 대한 지속적인 구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정미 기자)